

여수 방답진 관아 건축의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Buildings Arrangement and Location Supposition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f BangdapJin in Yeosu

위 소 연*
Wi, So-Yeon

성 대 철**
Sung, Dae-Ch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terials on Bangdapjin, summarize the excavation surveys and compare them with the past literature records and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Bangdapjin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It was categorized into the castle in the original cadastral map, which allowed to identify the overall shape of Jionseong Castle. The Chi on the castle wall and Ongseong on the Munji have also been identified. The majority of state-owned land in the original cadastral map is usually concentrated at the point where the road from the north intersects with the road from the east to the castle, which is presumably where public buildings were located. One of the photos in the 1950s shows the presence of a building presumed to be an inn featuring, extraordinary shape that deserves special attention. The gate is believed to have had Ongseong due to evidence of a portion protruded at right angles from the castle according to the original cadastral map.

주요어 : 여수, 방답진, 관아건축, 동헌, 객사, 부속건축물, 도로구성

Keywords : Yeosu, BangdapJin, Government Office Buildings, Dongheon, Gaegsa, Attached buildings, Road configur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여수 방답진성은 조선시대 초기에 설치한 수군진인 방답진의 성곽이다. 방답진의 설치 기록이 중종 17~18년(1522~1523년) 임으로 볼 때 진의 설치와 함께 진성도 함께 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답진성은 조선 초기 수군진성으로 역사성이 있으며 원형 성벽이 일부 잔존하여 건축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성 내부의 군관청은 원형으로 남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되었다. 방답진성은 1895년 폐진 이후 주민 생활 공간이나 교통로 등과 연결되면서 상당 부분 헐렸지만 일부 구간에서 원형 그대로 남겨진 부분도 확인된다.

방답진성의 문지 및 성벽 확인을 위한 고고학적 조사¹⁾가 있었으나 동헌, 객사 등 관아건축에 관련된 조사나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답진에 관한 자료와 발굴조사 내용을 종합하고 문헌기록과 비교하여 방답진 관아시설물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지적원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주요 관아건축물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은 방답진과 공해건축물에 관련된 사료적 고찰

* 미강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공학박사

**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소 소장,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Jeonna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Institute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rchisung@nate.com)

1) (재)남도문화재연구원·여수시, 『여수 방답진성』-지표조사보고서-, 2005, (재)마한문화연구원, 『방답진성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돌산읍 소재지 정비사업-, 2013

과 현장조사 및 지적원도를 종합하여 관아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사료적 고찰은 방답진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호남진지, 호남읍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고지도 중에서 방답진이 가장 상세히 표현된 1872년 지방지도를 고찰²⁾하고 이를 문헌 기록과 비교하였다.

호남진지와 호남읍지에서 확인되는 건축물과 1872년 지방지도에 표현된 건축물을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다시 근대 지적원도, 항공사진 등과 종합하여 공해 건축물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고고학적 조사나 보수복원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방답진의 연혁 및 배치

2.1 방답진의 연혁 및 관련기록³⁾

방답진의 처음 언급은 중종대(중종 17년, 1522년)이다. 주요 방어지로 미조항, 가리포 등과 함께 성을 쌓도록 했다는 내용이다.⁴⁾ 돌산진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진에 비해서 늦게 방답진

2) 이외에도 비변사인방안지도와 해동지도에서 방답진이 표현되었지만 아주 간략화되어 성벽과 문 정도만 표현되었다.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 전라좌수영편』, 2014, pp.70-74.

4)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1522년) 5월 7일 임자 8번째 기사, 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미조항(彌助項)·방답(防踏)·가리포(加里浦) 등에 이미 성(城)을 쌓도록 하였는데, 그곳은 긴요한 방어지입니다. 그러므로 관원을 보내어 적간(撤奸)하도록 하거나 유시(諭示)를 내려야만 그 도(道)에서 반드시 변방을 중시한다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없어, 변방(邊防)의 환란이 염려스러우니 남쪽 지방의 방어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농사철에 관원을 보냈을 불가할 듯하니, 유시를 내림이 가하다." 하였다.

은 언급되었다. 돌산진은 여주시 화양면 용주리에 위치하지만 방답진은 돌산도에 위치하였다. 고려말 돌산도에 사는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켰는데 이는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돌산’의 지명은 집단 이주 시 함께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돌산도에 다시 살게 되어 방답진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돌산진이 고돌산진(古突山鎭)으로 불린 것도 방답진이 돌산도에 신설되어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방답진 설치의 문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미조항, 가리포 등과 함께 중종 17년(1522)에 성을 쌓게 했다고 기록되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⁵⁾에는 중종 18년(1523)에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호남진지』에서는 성종 18년(1487)에 첨사를 설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하지만 『연산군일기』에서 전라도 순변사가 연산군 3년(1497)에 돌산도의 왜구 토벌을 돌산포 만호와 함께 나간 기록이 있어 그 이후인 중종대에 방답진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방답진은 설치와 함께 진성이 축조되었으며 중종 17~18년 전후에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군진의 편제는 『세종실록지리지』, 『경국대전』, 중종 개편, 임진왜란, 조선후기로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는데, 중종 때 설치된 방답진의 편제도 중종개편 때부터 확인된다. 방답진은 전라좌수영 아래 사도진과 함께 거진(巨鎭)인 첨사진(僉使鎭)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폐진 때까지 유지된다. 그런데 거진임에도 불구하고 방답진은 같은 첨사진인 사도첨사가 여러 만호진을 관할 아래 두고 있던 것과는 달리 수군 만호진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지 않았다. 일부 문헌에서 중 4품 동첨절제사가 주둔하는 수군진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 사도진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설과 직할 수군만을 거느린 채 전라좌수사의 통할 아래 들어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Table 1. Records related to bangdapJin's vessel and officials

서명	선박
『여지도서』 「순천」 진보 ⁶⁾	
『순천부읍지』 附 「방답진지」 ⁷⁾	12전선 각 1척, 병선 2척, 12협선 각 2척
『만기요람』 「군정편」 4 舟師 전라좌수영	전선 2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
『1872년 지방지도』 「순천방답진지도」	전선 2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
『호남읍지』 「순천부」 附 「방답진지」 ⁸⁾	전선 2척, 병선 2척, 12협선 각 2척
『호남진지』 「방답진지」 ⁹⁾	전선 2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

兵曹判書張順孫啓曰: “彌助項、防踏、加里浦等處、已令築城。防禦至緊、或令遣官攬奸、或下諭、然後其道必知重遷之意。今對馬島主求請、未得盡從、邊患可慮、南方防禦、尤可慎也。” 傳曰: “農時遣官、似不可、下諭可也。” (『中宗實錄』 卷44 中宗 17년 5월 7일 任子).

- 방답진은 북동쪽 170리에 있다. 중종 18년 적이 통행하는 길목에 요해처로 설치되었고 첨사 1명이 있다.
關防條 防踏鎭在府東一百七十里 今上(中宗) 十八年以賊路要害設鎭置僉使一人(『新增東國輿地勝覽』 卷40 順天都護府 關防 防踏鎭 夾註)
- 군관(軍官) 32, 기패관(旗牌官) 18, 진무(鎭撫) 20, 지인(智印) 9, 사령(使令) 24, 군뢰(軍牢) 39, 기수(旗手) 36
- 군관 50, 기패관 25, 군뢰 50, 기수 50, 재부(財夫) 50, 화포장(火砲匠) 22, 포수(砲手) 28, 사공이공(沙工耳工) 18, 능노군(能槽軍) 302, 방군(防軍) 1,780, 지인 25, 사령 35
- 군관 50, 기패관 25, 진무 45, 지인 25, 군뢰 25, 기수 50, 사령 25, 사부

방답진은 수군지휘체계상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첨사진에 걸맞은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 먼저 보유한 전선(戰船)의 수를 살펴보면 방답진은 2척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호진은 전선을 1척씩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전라좌수영계록』에서 방답진, 사도진의 순서로 좌수영 휘하 수군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방답진은 사도진과 대등하거나 그 위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각 문헌마다 군관의 수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전선 2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또는 협선 4척)으로 보유 선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또한 거북선도 방답진에서 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충무공전서』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사용한 총 3척의 거북선은 그 이름이 ‘營龜船’, ‘順天龜船’, ‘防踏龜船’ 으로 이는 제작된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다. 순천부 선소에 건조한 거북선은 ‘順天龜船’, 좌수영에서 건조한 거북선은 ‘營龜船’, 방답진 선소에서 건조한 거북선은 ‘防踏龜船’으로 불리었다¹⁰⁾. 『1872년 지방지도』에서 방답진의 선소, 수군기, 집물고, 무검정 등 4곳의 선소 관련시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1곳이 기록된 첨사·만호진들에 비하면 선소 관련 시설을 강조한 것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방답진의 성곽과 관아건축

여지도서를 비롯해 읍지 등 5개소에서 방답진성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된다. 성곽 둘레길이는 모두 694보로 동일하며, 높이는 『여지도서』에서는 10척, 그 외 문헌에서는 19척으로 언급하고 있다. 영조척으로 환산시 대략 둘레길이는 1,300m, 높이는 4.67~5.93m이다. 현재 지적도상 둘레길이는 약 1,100m이며,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4.5m 정도이다.

Table 2. BangdapJin's castle related records

	간행	둘레	높이	城門	여첩	井	池
여지도서	1759年	694尺	10尺		387	7	
순천부읍지		694步	19尺	3	205		
호남읍지	1872年	694步	19尺	3	205		1
호남진지	1895年	694步	19尺	3	205		1
여산지		694步	19尺	3	205		

- 50, 화포장 22, 포수 68, 타공이장 18, 능노군 302, 방군 1620, 1전선 64(기패관 2, 포도관(捕盜官) 2, 훈도(訓導) 1, 사부(射夫) 15, 화포장 10, 포수 24, 타공(舵工) 2, 료수(繚手) 2, 정수(楫手) 2, 무상(舞上) 2, 선치(船置) 1, 능노군 108)
- 2전선 177(선장 1, 기패관 2, 포도관 2, 훈도 1, 사부 15, 화포장 15, 포수 24, 타공 21, 료수 2, 정수 2, 무상 2, 선치 1, 능노군 108)
- 병선 226(1척당 선장 2, 기패관 2, 훈도 2, 사부 20, 화포장 2, 포수 22, 사공 2, 능노군 60, 협선 48, 1척당 사격군 12)
- 9) 군관 11, 장교 2, 진무 11, 통인 2, 사령 6, 기수 4, 군뢰 4
- 1전선 238(선장 1, 기패관 3, 포도관 3, 훈도 2, 사부 25, 화포장 11, 포수 34, 상하장타공선직 10, 능노군 138)
- 2전선 239(선장 2, 기패관 3, 포도관 2, 훈도 2, 사부 25, 화포장 11, 포수 34, 상하장타공선직 10, 능노군 138)
- 사후선 48(1척당 사격 12)
-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 전라좌수영편』, 2014, p.75.; 『이충무공전서』 ‘營龜船’, ‘防踏龜船’은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見乃梁破倭兵狀”과 ‘釜山破倭兵狀’, ‘順天龜船’은 『李忠武公全書』 卷之五 ‘亂中日記’ 癸巳年 7月에서 확인된다.

현재 길이는 약 1,195m이며, 남북이 388m로 가장 길고, 북벽 308m, 서벽 295m, 동벽 204m이다¹¹⁾. 현재 높이는 각 구간에 비해 차이가 있으나 서벽의 경우 350~400cm 내외이고, 다른 구간은 주변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1m 내외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문지의 기록도 『호남읍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현재에도 동서남의 세 곳에서 문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여지도서』의 7개 우물은 현재 4개소만이 확인된다.

방답진의 관아시설에 대해서 『호남진지』, 『1872년 지도』, 『호남읍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창고가 20개나 있었다고 하여 돌산도 둔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 Facility-related records by document bangdapjin

시설물	호남 읍지	1872년 지방지도	호남 진지	시설물	호남 읍지	1872년 지방지도	호남 진지
동문	○	○	1칸	수군기	○	○	
서문	○	○	1칸	아사	○	○	3칸
남문	○	○	3칸	어변정	○		
객사	○	○	5칸	유군기	○	○	
공문			2칸	이청		○	
관창고			2칸	장교청			3칸
관청		○		장청		○	
군관청			3칸	저치고		○	
군기고			3칸	집물고		○	2칸
군퇴청			3칸	진고		○	
군향고	○			진무청			4칸
기수청			3칸	진홀창	○		
대변정			2칸	책실		○	
망월대		○		통인청			3칸
무검정		○		포청		○	
벽송정		○		홍문		○	
병고	○			화약고	○	○	1칸
사령청			3칸	화포청			2칸
선소		○		합계	12	21	19

『호남진지』내 「방답진지」¹²⁾에서는 동문(東門) 1칸, 남문(南門) 3칸, 서문(西門) 1칸과 함께 객사(客舍) 5칸, 아사(衙舍) 3칸, 공문(公門) 2칸, 대변정(待變亭) 2칸, 집물고(什物庫) 2칸, 군기고(軍器庫) 3칸, 화약고(火藥庫) 1칸, 관창고(官倉庫) 2칸, 군관청(軍官廳) 3칸, 장교청(將校廳) 3칸, 진무청(鎭撫廳) 4칸, 통인청(週引廳) 3칸, 사령청(使令廳) 3칸, 기수청(旗手廳) 3칸, 군퇴청(軍牢廳) 3칸, 화포청(火砲廳) 2칸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내부의 시설명과 함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동문(東門), 서문(西門), 남문(南門)과 함께 객사(客舍), 관청(官廳), 망월대(望月台), 무검정(撫劍亭), 벽송정(碧松亭), 집물고(什物庫), 선소(船所), 수군기(水軍器), 아사(衙舍), 유군기(留軍器), 이청(吏廳), 장청(將廳), 저치고

(儲置庫), 지(池), 진고(賑庫), 책실(冊室), 포청(砲廳), 홍문(紅門), 화약고(火藥庫)가 있다.

『호남읍지』¹³⁾는 동문(東門), 서문(西門), 남문(南門)과 함께 내부 시설로는 객사(客舍), 군향고(單節庫), 병고(兵庫), 수군기(水軍器), 아사(衙舍), 어변정(禦邊亭), 유군기(留軍器), 진홀창(賑恤倉), 화약고(火藥庫)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남진지』, 『1872년 지방지도』, 『호남읍지』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시설은 동문, 서문, 남문과 함께 객사, 아사, 화약고로 확인되는데 문과 객사, 아사는 필수 시설이지만 화약고가 공통적으로 기록된 점은 주목되며, 이는 수군진으로서 중요한 시설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중 호남읍지의 ‘어변정(禦邊亭)’과 1872년 지도의 ‘무검정(撫劍亭)’은 동일한 시설로 선소를 통상 ‘어변정’이라 표기한 점과 달리 ‘무검정’으로 표현하고, 별도 ‘선소’도 기록되었다. 어변정은 주로 수군진성의 성문 밖 선소, 선창 가까이에 설치하여 군선 승무원의 출동대기 장소로 사용하였다.¹⁴⁾ 이와 같이 동일 건물을 기록마다 다르게 표현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록의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3. 방답진의 도로망 및 소유자 고찰

3.1 방답진의 입지 및 도로구성

방답진은 육상에서 중요성 뿐 아니라 해로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는데, 조선시대에도 미조항, 가리포 등과 함께 주요 방어로 손꼽혔다. 여수반도의 내해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외해에서 진입부에 많은 섬들이 있고 바로 앞에 송도가 있어 내부에서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쉽고 외부에서는 진지가 쉽게 노출되지 않은 장점이 있어 수군진으로서의 최적의 위치였을 것이다.

『1872년 지도』에서 성 내부에 도로 표현은 없지만 동문과 서문을 중심으로 이 위쪽인 북쪽에 아사와 객사가 위치한다. 객사는 북동쪽, 아사는 객사의 서쪽에 위치하고 각각 담장으로 구획되어져 있다. 아사 담장 안에는 2동의 건물이 표현되어 앞쪽은 동헌, 뒤쪽은 내야로 추정된다. 아사 서쪽 담장 밖으로 장청, 동쪽 담장 밖으로는 책실이 위치하고 있다. 동문 앞으로는 유군기가 위치하고 유군기 밑으로 화약고가 위치한다. 서문 앞으로는 이청이 위치하고 이청 밑으로 관청이 위치한다. 방답진성의 중앙부분에 진고가 위치하고 남문 북쪽으로 홍문이 서쪽으로 지(池)가 위치하고 있다. 동문, 서문, 남문 모두 팔작지붕으로 표현되어 있고 서문과 남문은 중층 누문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동문은 단층으로 표현되어 차이를 보인다. 성문과 연결된 길의 두께가 다르고, 서문으로 연결되는 길이 대대로 표현되어 주 진입로로 볼 수 있고, 동문이 소로로 되어 동문이 단층으로 표현된 점과 관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서문이 진성의 정문으로 보인다. 선소구역에는 수군기, 집물고, 무검정이 표현

11) 여수시, 여수 방답진성 발굴조사보고서, 2007, p.48.
12) 『湖南鎮誌』(1895, 奎 12188)

13) 『湖南巴誌』(1872, 奎 12175)
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우리배사전』, 2020, p.441.



Fig. 1. Bangdapjin's map(1872)

되었고, 굴강 위쪽으로 선소가 표현되어 배를 건조한 기능과 굴강 공간을 함께 표현한 것이며, 선소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지적원도¹⁵⁾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형태나 도로체계는 현재와 거의 동일하며 다만 도로의 확장이나 토지의 분할 정도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내리는 구 17번 국도와 동일한 형태로 동문에서 서문까지를 연결하는 도로와 이와 직교하는 남북방향의 도로가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남문이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구거와 함께 작은 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적원도에는 지목이 성(城)으로 표기되어 그 당시 진성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 형태는 아랫변이 윗변보다 긴 사다리꼴 형태이며 북동쪽의 산을 끼고 동서방향이 남북방향보다 길게 구성되었다. 4방의 각 성벽은 거의 일직선에 가까우며, 성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만 둥그런 형태로 확인된다. 또한 모서리 부분의 성벽이 일직선 구간보다 두껍게 확인되며, 지형이 높은 북서쪽, 북동쪽, 남서쪽 모서리에서 성벽도 두껍게 표현되어 자연 구릉을 이용하면서 성벽을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벽과 남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과 북벽에서는 치(雉)가 확인된다.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첫 번째 치는 성벽에서 거의 직각으로 돌출되었으며, 두 번째는 사다리꼴로 돌출되어 약간의 차이는 있다. 방향의 치는 동헌(379번지)과 화약고(257번지)의 추정지와 인접해 있는데 이는 공해시설물에서의 연계와 방어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약고의 추정지(257번지)와 접한 치는 동쪽 해안에서 진입하는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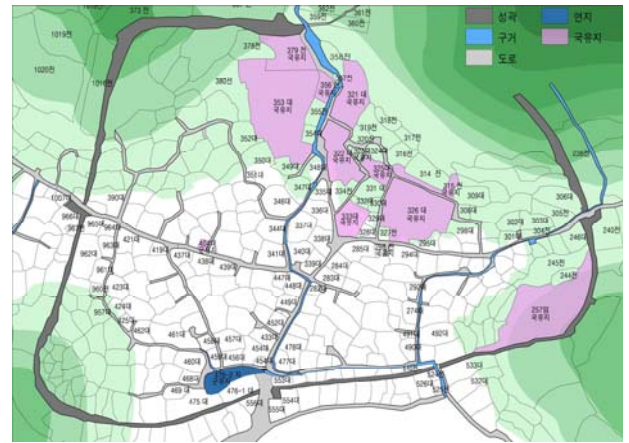


Fig. 2. Jijeog-wondo(1915)(dark gray : castle(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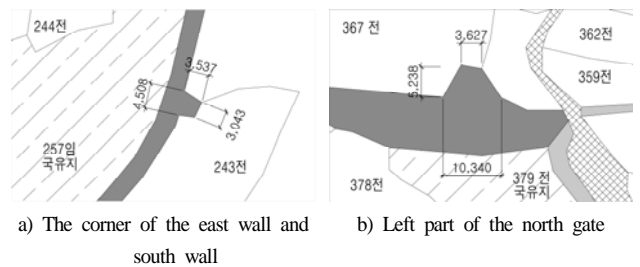


Fig. 3. Form and scale of chi(雉)

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위치와 지형으로 각루 또는 포루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북쪽 치는 성문 옆에 위치하여 성문을 보호하는 기능이며, 동쪽 치는 주로 감시기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답진에서는 북문이 북쪽 산과 연결되어 성문을 설치하지 않고 성문의 초루를 대신할 적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3.2 토지 소유자 고찰

관아건축은 국유지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1915년 일본인이 제작한 지적원도의 소유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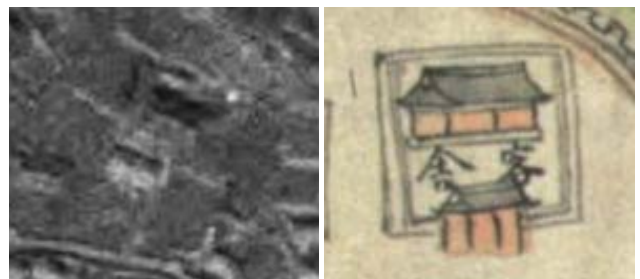


Fig. 4. Gaegsa area

지적원도의 전체 필지는 273개이며, 이 중에서 균유지, 또는 국유지는 14필지로 추정된다. 국유지는 북쪽과 379, 353, 356, 321, 322, 323, 333, 326, 286 번지 등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도

15) 1915년 제작된 지적원도는 당시 소유자(국유지)에 의해 당시 공해 시설물의 위치나 지목(성곽)에 의해 진성의 형태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이며, 전라남도 여수군 돌산면 군내리 원도는 총 25매 구성되었다. 축척은 1/1200, 방답진이 확인되는 부분은 원도 9호, 10호, 15호, 16호 부분으로 4매에 걸쳐 있다.

로와 동쪽에서 성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대체로 집중되었다. 이 지역은 성 내부에서도 대체로 높은 곳이므로 남쪽으로 낮아지는 경사지를 자연스럽게 조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에 여러 관아건축을 설치하여 바닷가쪽의 감시와 감독이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유지인 257번지는 화약고로 추정되는데 동벽에 붙어있고, 중앙부에서 이격되면서 남동쪽의 높은 곳으로, 기능적으로 볼 때 안정성을 고려하여 중앙부에서는 떨어지고, 감시와 조망이 유리한 높은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고지도에서도 화약고는 동문과 남문의 사이 모서리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일치한다.

호남읍지와 호남진지에 기록된 池가 지도상에서도 서문과 남문 사이에서 확인되며, 지적원도에서도 476번지가 '池'로 표현되어 연못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적원도상의 476번지는 동서방향으로 긴 타원형으로 좌측은 원형이며, 동측은 꼬리처럼 얇아진다. 이 연못은 북문 추정지에서부터 남북으로 이어진 주 도로 옆의 구거로 연결된다. 북쪽에서부터 자연 지형으로 인해 입수는 되지만 별도 수구는 확인되지 않고, 성벽과 인접하여 성벽 하부의 암벽 등에 의해 외부로 흘렀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치 않다.

4. 방답진의 공해건축물

방답진성과 관련된 관아건물지의 자료는 「방답진지도(防踏鎭地圖)」¹⁶⁾에서 확인된다. 「방답진지도」에는 성내에 12동의 관아 건물과 서문밖에 선소와 접하여 있는 3동의 건물 등 15동의 건물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건물지는 2동으로 군관청과 동헌(현 읍사무소 뒤편)이 있는데, 동헌은 복원된 것이다. 객사는 1972년까지 남아 있었으나 1972년 2월 22일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현재는 돌산우체국 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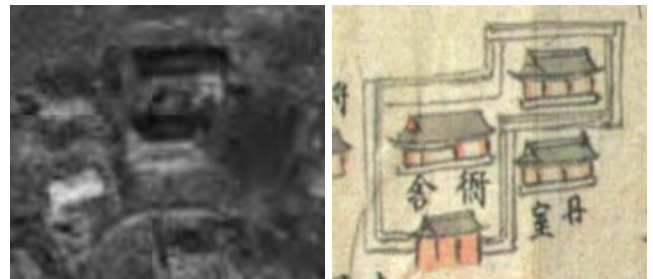
4.1 동헌



Fig. 5. Dongheon(resoration)

과거 항공사진¹⁷⁾을 살펴보면 먼저 동헌터에서는 최소 2동의

건물이 2열로 배치된 형태를 보인다. 두 건물 모두 일자형처럼 보이지만 위쪽(북쪽)의 건물의 우측 정면으로 돌출된 듯한 형태가 되어 ㄱ자형으로도 볼 수 있다. 1872년 지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만 동헌의 경우 대개 내아와 책실, 서재, 통인청 등의 부속건물과 함께 영역을 구성하므로 앞쪽의 건물이 아사, 뒤쪽이 내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헌보다 내아 규모가 크므로 뒤쪽 건물이 아사라면 전면은 부속시설이 되며, 내아는 내아의 뒤나 측면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두 건물의 외곽으로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구획이 된 것으로 보아 담장으로 아사 영역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행정구역상 군내리 353-1에 해당하며, 1915년과 비교할 때 현재는 주변 대지가 통합되어 더 확대된 모습이다. 현재 복원된 동헌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2차례에 걸쳐 복원되었으며, 이 우측(동쪽)에 돌산읍사무소가 위치한다.



a) Past aerial photos

b) Old map

Fig. 6. Dongheon area

4.2 객사

객사터로 전하는 326번지는 353번지와 함께 단일 필지로 가장 큰 필지 중의 하나이며, 객사는 1972년 2월 22일 화재로 소실되었다. 1969년 항공사진에는 객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확인되지만 1972년의 항공사진에서는 정청 건물이 보이지 않아 소실된 후의 사진으로 판단된다.

객사는 진성 내에서 동헌과 함께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으로 지형,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위치한다. 우선 동문, 서문, 동헌의 북쪽에서 접근성이 좋고 동헌터보다 남동쪽에 위치하지만 해발고도는 15m 정도로 동일하다. 동헌터와 함께 진성 내 가장 높은 곳이다. 동헌터가 성내 행정 및 관리의 최적지라면 객사터는 가장 상징적인 위치로 보인다.

1969년 항공사진과 지도를 비교할 때 대체로 삼문과 정청으로 구성되는 비교적 간단한 구성으로 보인다. 사진상에서 일자형 건물이 앞뒤로 배치되었다. 읍성 내 객사는 정청과 좌우 익헌의 구성이 일반적이지만 완도객사(전남 문화재자료 109호)나 장목진객사(경남 유형문화재 제189호)와 같이 단독 건물의 사례도 있다.

16) 서울대 규장각 No. 1510

17)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소장 중인 방답진 주변 항공사진은 1954년부터 확인되지만 1954년의 사진은 너무 희미하여 시설물의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그나마 도로체계와 색,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은 1969년도 사진부터이다.



Fig. 7. Panoramic view of bangdapJin(1950)



Fig. 8. Building presumed to be Gaegsa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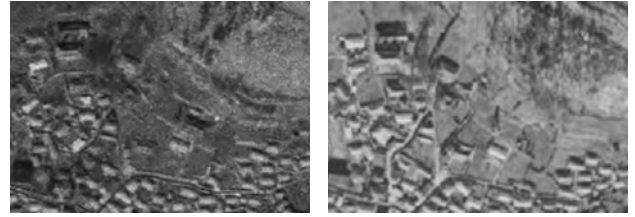
1950년대의 사진에도 객사로 추정 되는 건물이 확인되는데, 팔작지붕으로 보이며, 좌우 일자형의 건물이 연결하지만 정청 건물과 이격되었고 지붕도 별도로 구성되어 익헌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4.3 군관청



Fig. 9. Military office

군관청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322번지인데, 이곳은 동쪽의 객사와 북서쪽의 동헌 사이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건너편이다. 군관청은 순교청으로 사용되었다고도 전하지만 ‘순교청’의 명칭은 다른 고지도나 문헌에서 용례가 극히 드물다. 다만 호남진지에서 ‘군관청’이 3칸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실제했던 것은 확실할 것이다. 또한 이 위치를 지도와 비교할 때 객사와 동헌 사이에 표현된 건물은 없고, 다만 포청(砲廳)이 객사 앞에 있고, 호남진지의 ‘화포청(火砲廳, 2칸)’이 기록되어 군관청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래의 관아 부속건축물로 실재한 것으로 보이며, 호남진지에 기록이 확인되고, 그 위치에 있어서 객사와 동헌의 중간 지점이라는 점에서 추후 다른 부속건축물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어변경과 무검정의 경우처럼 동일 건물이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현 군관청의 위치가 지도상에 포청이 표현된 점으로 볼 때 포괄적인 의미로서 포청을 군관청으로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a) 1969 b) 1972

Fig. 10. Aerial photos of the military office

4.4 성문

동문은 방답진성의 동쪽에 위치하는 문지로 『호남진지』 「방답진지」에서 1칸으로 기록되었다. 방답진지도(1872년 지도)에서는 중층의 누문인 서문·남문과는 달리 단층 성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적원도를 살펴보면 240번지의 동북쪽으로 체성과 직각방향으로 돌출된 흔적이 확인되어 용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문 주변에서 도로와 함께 구거가 표현되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길이 남문 앞의 연지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East b) West

Fig. 11. Status of gates

서문지는 「방답진지」에서 1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방답진지도에서는 중층 누문으로 표현되었다. 선소와 연결되는 길의 두께가 대도로 표현되어 주진입 도로이며, 정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적원도 상에서 966번지의 서북쪽으로 체성과 직각방향으로 돌출된 흔적이 확인되어 용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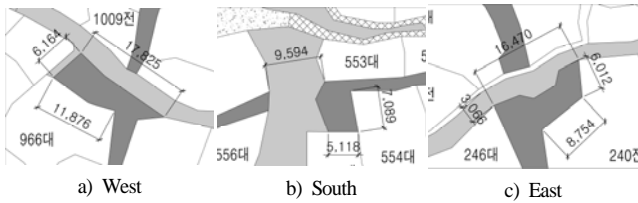
남문은 「방답진지」에 3칸으로 기록되었고 방답진지도에서는 서문과 함께 중층 누문으로 표현되었다. 지적원도를 살펴보면 남문과 같이 체성의 직각방향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어 역시 용성의 흔적으로 보인다. 특히 남문에서는 동문과 서문과 달리 도로의 폭이 확연하게 넓게 확인된다. 이는 호남진지에서 동문과 서문은 1칸, 남문은 3칸으로 기록된 점과 유사하여 성문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남문지는 남벽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성의 안쪽에서 남외 마을로 통하는 길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은 군내리 479-1번지와 553-1번지 사이에 해당하는 도로이다. 남문지는 영남루 터로 전해지고 있으며, 1898년에 개축하였으나 민가 등이 들어서면서 영남루는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도로 서쪽에 해당하는 479-1번지 앞 도로에서 문지의 초석이 확인되나 도로 속에 초석이 묻혀 있는 상태이다. 현재 확인되는 초석은 110×100×46cm으로 매우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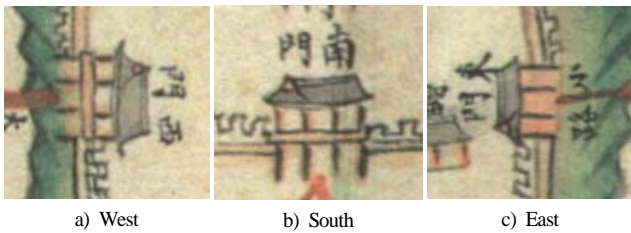
a) South b) Cornerstone

Fig. 12. Status of gates



a) West b) South c) East
Fig. 13. Jijeog-wondo's gate

지적원도의 지적 형태에 의해 동문, 서문, 남문 모두 웅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형태로 웅성의 평면 형태를 어느 추정할 수 있다. 동문은 돌출된 부분이 체성에서 직각방향으로 돌출되어 반원형 형태로 굽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반원형의 웅성으로 추정되고 서문과 남문은 이와 달리 꺾어진 방형 웅성으로 추정된다.



a) West b) South c) East
Fig. 14. Dolsanjin map's gate(1872)



a) East b) West
Fig. 15. Gochang-eupseong fortress 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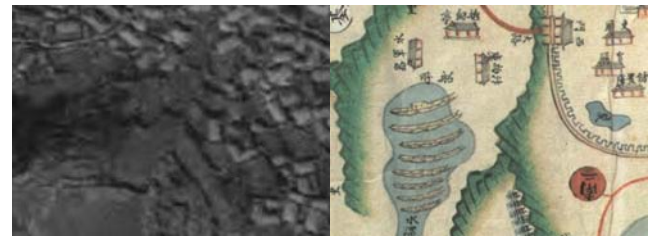
서문과 동문이 호남진지의 기록상 1칸으로 기록되었고, 남문은 3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도상의 표현과도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먼저 서문과 동문은 녹색으로 표현된 성벽이 함께 표현되었지만 남문은 단선으로 표현된 여장의 사이에 위치하여 차이를 보인다. 즉, 성문이 한칸이라는 점을 기존 읍성의 성문과 비교할 때 개거식 성문의 하층 중앙부분만 성문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 3칸의 기록은 고창읍성의 진서

루와 같이 3칸 모두에 문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지도상 서문·남문이 누문형인 점과는 달리 동문이 단층 삼문형식으로 표현되어 차이는 있다.

또한 서문·동문과 남문과의 위계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서문은 기능상의 주출입을 위한 정문으로 볼 수 있고, 남문은 바다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바다쪽에서 보여지는 상징성을 강조하여 중층 누문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4.5 선소

선소는 서문 밖 서남쪽(돌산읍 군내리 980번지와 98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서문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0m 떨어진 곳으로 「방답진지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방답진지도」에는 서문 밖 굴강에 배를 메어 두고 있는 모습이다. 1992년 조사되어진 바에 의하면 굴강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과체의 길이가 80m 쯤 되며, 안쪽은 폭이 약 30m 쯤 된다¹⁸⁾.



a) Past aerial photos b) Old map

Fig. 16. Seonso



Fig. 17. Seonso

근처에는 방답진 선소라는 안내판이 있으며, 방답진에서 배를 만들던 곳이라고 전한다. 또한 수군 무기고, 전쟁에 필요한 쌀, 물, 군복 등의 물품을 저장했던 창고, 무기를 제작하는 곳, 전선을 만들어 바다로 내려 보내고 수리하던 곳이 있었다고 전한다.

4.6 기타 공해 건축물

국유지인 325번지는 객사터로 추정되는 326번지와 군관청 사이에 있으면서 이 둘을 연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1번지도 동헌의 동쪽에 도로를 건너 위치하고, 국유지였으므로 공해건축물의 가능성이 크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 살펴보면 책실은 아사의 영역 동쪽 밖에 위치하는데 321번지가 위치상 책실로 추정된다.

323번지는 앞의 필지와는 달리 매우 소규모이고, 322번지의

18) 文榮龜 『全羅左水營研究』, 1992.

뒤쪽(북쪽)에 위치한다. 필지의 형태 또한 삼각형으로 사방이 모두 도로로 둘러싸여 광장이나 마당과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다.

333번지는 객사터 정면의 도로와 동헌으로 올라가는 도로의 모서리에 위치한 곳으로 동헌터와 객사터 사이에 위치한 국유지라는 점에서 공해건축물의 가능성이 크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 진고는 동헌과 객사 사이의 진성 중앙에 위치하여 333번지는 위치상 진고로 추정된다.

257번지는 서문과 남문 사이 성벽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동헌과 객사와 멀리 이격되어 성벽 가까운 곳에 화약고가 위치하고 있어 화약고로 추정된다. 257번지는 남동쪽의 높은 지형에 위치하여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워 위험한 화약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57번지에 면한 성벽에 치(雉)가 설치되어 있어 군사시설이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진지와 읍지, 지도상의 표현과 기록이 상이하므로 이들을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 주거시설이 밀집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성 내부 관아시설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는 연구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조사가 없는 현 상황에서 각종 기록의 비교와 관아건축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Table 4. The location of polluted buildings based on the state land in the jijeog-wondo

	지번	근거	
		1872년 지방지도	1969년 항공사진
군관청	322		확인됨
동헌	353	방답진의 북쪽에 위치	확인됨
객사	326	방답진의 북동쪽에 위치	확인됨
화약고	257	서문과 남문 사이 성벽 가까운 곳에 위치	
포청	236	객사의 전면에 위치	현 군관청 추정
진고	333	동헌과 객사 사이의 진성 중앙 위치	
책실	321	아사 영역 밖의 동쪽 위치	
동문	240 동북쪽		
서문	966 서북쪽		
남문	554 서쪽		
선소	980-987일대		

5. 결론

본 연구는 방답진에 관한 자료를 고찰하고 발굴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과거 문헌 기록과 비교하여 방답진 관아시설물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방답진 성곽의 둘레에 관한 기록은 모두 694보로 여리기록이 일치하며 현재길이와 지적도상 추정되는 둘레길이와 근사치로 확인되었고 방답진 내 시설물은 9~21개의 기록이 남아있다.

방답진의 지적원도상 전체적인 형태나 도로체계는 현재와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도로의 확장이 진행되고 토지는 작게 나

뉘어지는 등의 분할된 모습을 보인다. 지적도상 정확하게 “성(城)”의 표기가 있어 전체 형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 동서방향이 남북방향보다 길고 모서리가 둥그런 사다리꼴 형태인 진성의 전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성벽에 치와 문지 및 옹성도 확인되었고 치는 동헌과 화약고로 추정되는 국유지와 인접하여 공해시설물의 연계와 방어를 용이한 위치로 판단된다.

지적원도에서의 국유지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동쪽에서 성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대체로 집중되어 그 곳에 공해건축물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지형상 진성 내부의 높은 곳으로 남쪽 바다로 낮아지는 경사지에 관아건축을 설치하여 바닷가쪽의 감시와 감독도 용이한 위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항공사진에서는 동헌과 객사, 동헌의 부속건물 일부가 확인된다. 또한 관아건물로는 흔치 않은 ㄷ자 평면의 군관청은 원형이 남아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사진에는 객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확인되는데 팔작지붕으로 보이며, 좌우 일자형의 건물이 보이지만 정청 건물과 이격되었고 지붕도 별도로 구성되어 익헌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성문은 서문, 동문, 남문 모두 지적원도의 지적형태가 체성으로부터 직각으로 돌출된 흔적이 있어 옹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돌출된 형태에서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동문의 경우 옹성이 ㄱ자형의 직각이 아닌 약 110°의 둔각으로 구성되었지만 서문과 남문의 경우 꺾어지는 부분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방답진의 관아시설물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고고학적 성과와 문헌기록, 현장조사를 종합한 연구이다. 현재 원형이 남아 있는 군관청과 지적원도의 소유권에 국유지가 일부 구역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추후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공해건축물의 정확한 위치, 규모, 형태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재)남도문화재연구원, 여수시, 여수 방답진성-지표조사보고서-, 2005.
2. (재)마한문화연구원, 방답진성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돌산읍 소재지 정비사업-, 2013.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 전라좌수영편, 2014, pp.70-75.
4. 여수시, 여수 방답진성 발굴조사보고서, 2007, p.48.
5. 湖南鎮誌 (1895, 奎 12188).
6. 湖南巴誌 (1872, 奎 12175).
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우리배사전.
8. 文榮龜, 全羅左水營研究, 1992.

접 수 일 자 : 2021. 04. 08

초 심 안 료 일 자 : 2021. 05. 09

게 재 확 정 일 자 : 2021. 05. 20